

신 · 재생 에너지 개발 1조원 투자

한국전력에 발전6사 공급참여 협약 ... 2006-08년 21만TOE 공급

한국전력, 발전회사 등 대형 에너지 공급기업들이 신 · 재생 에너지 분야에 1조원 이상을 투자한다.

산업자원부는 한국전력, 6개 발전회사, 한국수자원공사,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9개 대형 에너지 공급기업들이 7월25일 신 · 재생에너지 공급참여 협약(RPA)을 체결하고 신 · 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에 노력키로 했다고 발표했다.

협약은 국제유가 급등, 교토의정서 발효 등 급변하는 국제에너지 환경 속에서 에너지 공급의 새로운 전기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.

에너지 공급기업들은 환경친화적인 선진형 에너지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1조1000억원을 신 · 재생 에너지 개발에 집중 투자키로 했다.

협약을 통해 확보되는 신 · 재생 에너지는 21만TOE(석유환산톤)로 2004년 신 · 재생 에너지 공급량인 500만 TOE의 약 4.2%이며 원유 159만배럴(876억원) 상당을 대체할 수 있다.

설비규모에서는 2004년 신 · 재생 에너지 발전설비(1644MW)의 21%(344MW)에 해당하는 것으로 100만kW급 원자력발전소 1/3기의 발전량과 맞먹는다.

또 협약을 통해 2004년 배출량 대비 약 0.12%인 17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예측됐다.

산자부는 앞으로 협약기관들의 자발적인 세부 투자계획과 추진일정을 받아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, 협약기관들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융자지원, 차액지원, 기관포상 등 다양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해나갈 방침이다.

<화학저널 2005/07/26>